

'주머니 속의 백과사전' <창해ABC북> 시리즈 나와

독특한 구성으로 눈길 끄는 문고본

프랑스 플라마리옹 출판사의 <ABC daire>를 우리말로 옮긴 <창해ABC북> 시리즈가 도서출판 창해에서 나왔다. <ABC daire>는 '미술' '고고학과 문명' '문화유산' '역사' '종교' '문학' '과학' '생활의 지혜' '자연' '스포츠' 등의 주제로 나뉘어 출간되고 있는데, 현재 총105권이 출간된 대형 기획시리즈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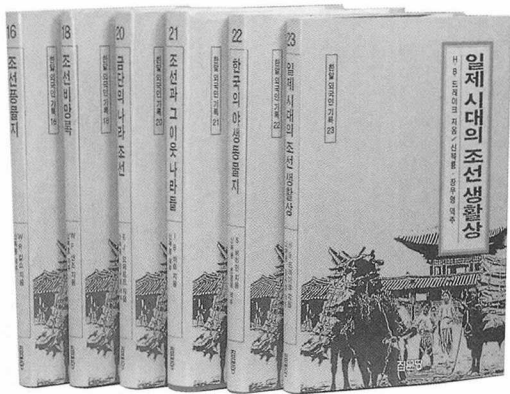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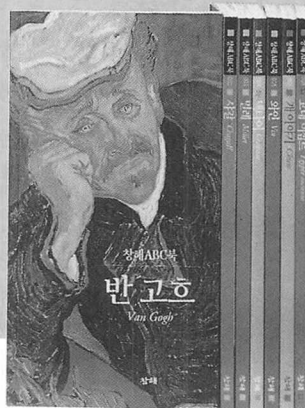
이번에 1차분으로 번역돼 국내에 소개된 책은 모두 7권. '미술'로는 <반 고흐>(마리 엘렌 당페라 외, 신성림), <샤갈>(실비 포레스티에 외, 이재형), <밀레>(즈느비에브 라강브르, 이정임) 등이 나왔고, '생활의 지혜'로는 <벡타이>(프랑스와 샤유, 황선희)와 <와인>(다니엘 르콩트 데 플로리스 외, 박찬규)이 나왔다. '자연'과 '고고학과 문명'으로는 각각 <개 이야기>(루이지 보이타니, 김이정)와 <고대 이집트>(기유메트 앙드레, 옥승혜)가 선보였다.

<창해ABC북>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주머니 속의 백과사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한편의 책이 해당 주제에 관한 폭넓은 교양적 지식을 담은 독립적인 백과사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창해ABC북>은 크게 '이야기'와 'ABC북'으로 나뉘어 있다. '이야기'에는 주제항목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실려 있는데, 특이한 점은 내용설명 과정에서 일반독자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단어나 개념어에 별(*) 표시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별도로 가나

다순으로 배열해 자세한 설명을 달아놓은 게 바로 'ABC북'이다. 인터넷의 링크개념이 아닐로그 책에 구현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와 'ABC북'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면서 서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항목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필요하면 '이야기'만 읽어도 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ABC북'만을 따로 참고해도 된다.

창해는 이 시리즈를 매월 10~20종 가량 출간, 올해 안에 100종을 펴낼 계획. 이와 함께 창해는 한국판 'ABC북'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판 'ABC북'은 앞으로 5년 동안 250여종이 나올 예정인데, 우선 한국의 미술·역사·문화유산을 다룰 계획이다. — 이권우 기자



<한말 외국인 기록> 전집 완간돼

제3자의 눈으로 기록한 당대 생활상

이들 책에는 구한말 당시의 역사·민속·정치·외교·사회제도 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야생동물지>는 당시의 동물생태계를 짐작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금단의 나라 조선>은 남연군 묘의 도굴꾼으로 잘 알려진 오페르트의 새로운 면모를 접할 수 있어 흥미로운 책이다.

이 전집은 자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주석이 돋보인다. 역주자인 신교수는 "주석이 단순한 보충설명을 넘어서 정확한 해설이 되도록 하고, 원저자의 실수까지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판 사진을 일일이 복원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신교수는 "당시 역사를 현장에서 목격한 인물들의 1차적 사료를 중심으로 책을 선정"했다며,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그리고 세계사나 동양사에서 한국사의 위치를 살펴보는데 이번 전집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기자

<한말 외국인 기록> 전집(집문당)이 완간됐다. 이 전집은 신복룡 교수(건국대 정치외교학과)가 구한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서구의 여행가·선교사·의사·탐험가·외교관 등이 남긴 한국 관련 기록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23종을 번역·주석한 것으로, 17종은 이미 출간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책은 <조선풍물지>(W. R. 칼스, 신복룡) <조선비망록>(W. F. 샌즈, 신복룡) <금단의 나라 조선>(E. J. 오페르트, 신복룡·장우영)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I. B. 비숍, 신복룡) <한국의 야생동물지>(S. 베리만, 신복룡·변영옥) <일제 시대의 조선 생활상>(H. B. 드레이크, 신복룡·장우영) 등 6권.